

할렐루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베냉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베냉에서의 지난 소식들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점점 더 저를 학사사역으로 깊이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하고 고민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기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며 보람을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에는 화도 나고 실망도 하며 선교사 스스로의 지혜 없음과 자책이 많이 되기도 하면서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레위기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학사사역 - 선교지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학사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제자들로 성장하며 자라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매주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말씀묵상시간을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고 배운 것을 스스로 노트에 적어서 자신만의 묵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사사역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생길 수 있는 복잡하고도 단순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여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을 돌볼 준비된 여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지난 시간 진행했었던 아동캠프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다른 아동캠프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올해에는 진행되었습니다. 협력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아동캠프에 참석했다가 아이들도 저도 많은 은혜를 받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베냉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폐회예배의 설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다른 교회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감사한 것은 아동캠프를 마치면서 배운것을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1등 2등 3등상을 모두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경공부와 아침묵상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면서도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사사역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아이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복신앙에 의거한 기도가 아닌 바른 기도를 가르치며 아이들 스스로 기도생활에 익숙해져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UEEB BÉTHEL

우물사역 - 지난해에는 두 곳의 시골마을에 우물을 시추해 물웅덩이에서 식수를 길어오던 주민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인근에 우물을 설치해서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르면서 찬양소리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곳 모두 주도로에서 시골길로 한참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어서 차량이동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보람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건축사역 - 2023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를 통해 두 군데의 교회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교회건축은 성전에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 전기시설작업까지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아무런 문제나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서 귀한 예배 처소로 허락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도제목

1.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 아이들이 복음으로,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3. 단체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향후사역에 대한 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4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국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5. 기도해 오던 차량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수입된 고가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좋은 차량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